

몬트리올을 구경하고

김 중 한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몬트리올 회의에 참관하도록 초대를 받고 여비를 얻게된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이었다. 많은 아세아 학생(160명) 중에서 다섯만이 초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어 그중에 끼어 들어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세아재단에서 회의 임박하여 2500불이 협회로 제공되어 아세아 지구 다섯나라(한국, 일본, 중국, 세이론, 인도)를 골라 한사람씩 대표로 초대하였고 선출 절차는 각 도서관 학교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형하였다고 들었다. 나머지 돈으로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자주 지방 도서관회의에 참관하는데 분배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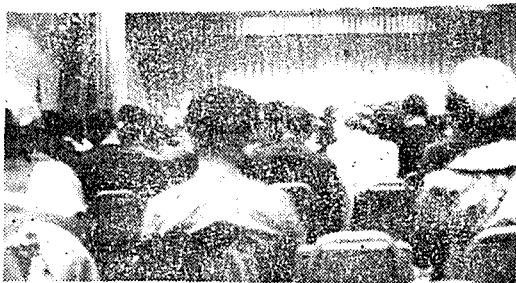
이 다섯 나라 학생들의 도서관 학교는 각각 인디아나, 일리노이, 캐소릭유니버시티, 컬럼비아 미시간 주립대학이었다.

6월 19일부터 24일 사이에 캐나다케백의 수도 몬트리올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미국과 캐나다의 도서관 협회가 한자리에 뭉친 합동회의로서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여권 수속 관계로 뉴욕을 들러가게 되었다. 뉴욕에서 비행기로 한 두 시간 가면 국경을 넘어서자 곧 몬트리올이다. 몬트리올은 French Canada 케백주주의 수도이고 캐나다의 파리라고 할만치 주민의 대부분이 불어를 일상 용어로 하고있다. 도시에서 좀 나

가면 영어가 잘 안통하는 곳이다. 몬트리올은 서울과 인천을 합친 것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도시의 넓이와 인구는 사분의 일 정도이다. 항만시설은 부산 보다 큰 것 같다.

회의 본부는 Queen Elizabeth 호텔이고 이밖에 Royal Mount 호텔 윈슬호텔 McGill 대학 몬트리올 대학 등 여러곳에서도 회의가 있었다. Queen Elizabeth 호텔은 만도호텔을 두어개 붙인것만한 규모에 지하층이 기차 역으로 되어있고 항공사도 연결되어 있어 호텔방에서 나오면 역으로 또는 비행장가는 택스도 직통 할 수 있게 되었다. 깨끗하기로는 모든 중 제일인 것 같다. 뉴욕과 비교하면 펜실베이아 역이나 그랜센탈 역은 소제안한 화덕과 같다. 제일 큰 회의실은 Queen 호텔에 있고 여기와 Royal 호텔에는 출판물과 도서관용품 기계의 전시장이 크게 벌어져 볼만하다. 자세히 보려면 하루 잘 걸린다. 다



(회의의 한 장면)

파를 대접하는 곳도 있어 이것을 다받고 가려면 하루에도 다 못 볼것같다. 선전책자와 견본을 몇개 끌라보다 얼마안가서 한집이 되어 포기하고 말았다.

회의 전날 회의 부분 큰 로비에 앉아서 혹시 이준희씨나 피바디에서 누가 오지나 않았나하고 기다려보다 어디서 본것같은 두 할머니를 보니 Buesr 여사의 Marks 여사였다. 여전히 두 분이 가치 다니며 한국에 있을때와 같이 건강해 보였다. 커피숍에서 이것저것 한군 이야기를 하다가 또 보자고 헤어지고는 또 다시 못 만났다고 말았다. 결국 한국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저 끝에 남득은 하였으나 백주라도 나누며 말리타향에 나온 나그네 서러움이라도 털어보자는 꿈이 깨어지고 만것이 유감이었다.

이번 합동 회의의 주제목은 문화 교류를 가로막는 여러 장벽을 뚫자는 것이였다. 첫총회에서 맥길 대학의 Cycil James 교수의 Keynote address 에서는 세가지 장벽, 즉 국가간의 장벽, 각 학문 분야간의 장벽, 다른 문화사이의 장벽등이 지적되어 이러한 장벽을 치우고 좀 더 나은 이해와 관계를 가지자는 제창은 만장의 갈채와 지지를 받았다. 이번회의가 두나라의 합동회의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열리었다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

회의는 일요일부터 여러군데서 시작하였다. 필자가 참관한 회의는 두차례에 걸친 총회와, 이사회, 교육부회, 초급대학 기준분과회, 공공 도서관부회, 국제 문화 교류부회 분류목록부회, 아동필름영사회 등이였다. 아세아 학생의 초대는 교육부회에서 주로 담당한 것이여서 Robert Giltter씨의 소개로 각 학생의 인사가 있어

환영을 받았다. 이 교육부회에서는 몇 도서관 학교장으로 구성된 파별형식의 토의가 있었다. 영국대표 격으로 마침 일리노이 대학에 와있는 영국 도서관 협회 사서 자격시험 심사위원장이 참석하여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등의 사서교육제도의 차이와 사서자격부여의 차이, 영국 출신 사서들의 미국내에서의 취직문제등이 토의되었다. 참고삼아 영국의 제도를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최저선으로 하여 일차 사서시험을 볼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과 같이 대학원 과정을 밟아야하는 제도와 차이가 많고 캐나다의 제도는 대학원에서 일년을 공부해야 석사 학위를 주게 되어있다. 결국 회의에서는 영국척의 호소와 앞으로 좀더 연구하자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미국에도 아직 많은 사람이 도서관의 혜택을 못받고있다. 1956년의 회에서 통과된 도서관 사업법(Library Service Act)에 의하여 매년 약 700만불이 오년동안 공공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쓰게되었는데 그동안 많은 성과를 본것이다. 그러나 금년이 최종년이여서 이것을 다시 연장해보려고 협회에서 많이 애를 쓰고있다. 필자가 참석한 총회에서는 사회자가 각회원에게 친지나 친척에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들을 통하여 연장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호소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도서관 법과 같은 운명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다.

공공 도서관 부회에서는 티트가 대학도서관학교장 Ralph Shaw 박사의 Toronto 지방도서관 실태연구 보고와 건의안이 중심이 되어 토의가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지적 될것은 되도록 도서관 이용자와 가까운 거리에 질량이 충분히 구비한 도서

관 단위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적은 분관들의 서비스의 질이 독립된 적은 도서관보다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분류목록 부회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통일 목록 규정에 관한 것이 보고되었다. 국제회의에 제출될 주기입문제, 단체기입문제, 간소화문제 등의 결정보고가 있었다. 여기서 또한 문제되는 것은 Cataloging in source 문제였다. 이것은 책을 인쇄할때 표지지 뒤면에 목록카드의 표본을 인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계획은 5만분의 경비를 얻어 1958년에 시작하여 미국회 도서관에서 실험해본결과 여러가지 난점에 봉착하여 실현성이 허박하여 포기하고 만 것이었다.

일반 관계에서는 다시 추진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 안은 이론상 상당이 재미있는 것이나 실제로는 여러 출판사의 협력과 재정문제와 여러가지 기술적인 난점으로 미국회 도서관에서 한번 혼이난 다음엔 무슨일이 있어도 다시 안하겠다고 완강히 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사회에서는 ALA 본부 사무실 신축자금 모집문제와 회칙변경과 기타 내부문제로 별로 특기 할만한 것이 없었다. 국제관계 부회에서는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unesco 도서관 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어 우리 한국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로 특기 할 것이 없었다.

초급대학 기준 부회에서는 대학 도서관의 기준을 올려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어야겠다는 분과위원회의 연구 보고가 있었다. 한국의 대학 도서관의 실정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이에 소개 해 보았자 꿈과같은 이야기가 되겠으나 좀 더 큰 시설과 장서와 인원을 항상 요구하는 점에는 어

느나라고 공통된 실정 같다. 아동필립 영 사회에서는 캐나다의 시청과 교육관계 기관에서 제작한 여러 아동 필름을 보여 주어 재미있게 보았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꿈도 못꾸고 있는 부문이다,

회의 끝날에 Swank 박사의 아세아 순회보고 강연이 있었으나 시일관계로 이것을 못듣고 하로닥어 떠난 것이 큰 유감이었다.

ALA회의의 모양을 보고 마치 대학교에 수업시간 표와 같이 시간표가 미리 짜있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예정이 되어있다. 한 회원이 보통 대역섯 회의에 참석하려면 상당히 바쁘다. 회의 감투라도 쓰게 되면 더욱 분주하게 마련이다. 회의 틈틈에는 유람객이 되어 뽀뽀이 헤여져 구경하고 다니는 것이 이 회의의 큰 재미라하겠다. 보통 대부분의 참석인은 이 회의 저회의로 다니며 보고를 듣는 역할뿐이다.

우리나라 도서관 협회 총회와 같은 활발한 분위기도 없고 대체로 토론을 하지도 않고 할수는 없게 되어있다. 보고되고 제의 된 것을 받거나 안받거나하는 것 뿐이며 대개 보면 수동적이다.

매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여는 이회의의 뜻을 말하면 우선 그저 모인다는 자체가 한 단체적인 기능이나 전문 분야의 단합이란 점으로 효과있는 일일 것이고, 실제적인 효과는 서로의 의견과, 정보교환, 통일적인 실행사항의 토의나 실행행일 것이고 이밖의 부수적인 효과를 보면 반유가, 반유람 과 옛친구와 동료로 맞나는 일이라하겠다.

참석한 사람들은 대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말을 들으면 결의는 결의대로 하면서 실

천은 안하고 호지부지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 의견을 내놓지 못해서 자기말을 안들어주어서 불평하는 사람은 맞았났다.

앞으로 늘 발전하는 단체와 그렇지 못하는 단체의 구별은 이렇한 심리 상태와 태도에 있다고 보겠다. 즉 분렬된 단체는 항상 싸움하는데 전력을 소비하고 말것이다. 단합한 단체는 언제고 목적을 달성하게 마련이다. 미국의 도서관인은 당장손에 넘치는 일이 태산같고 사람이 모자라고 옆집 넘겨보고 탐낼 여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 단합해서 서로 도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한국 도서관 상태를 보면 일할 사람이 엄청나게 모자라지만 사람이 넘쳐 흐르고 도서관 하나 안생기는데 사서는 그래도 양성해내지 않으면 안되는 모순된 지경에 있으나 이것은 전적으로 도서관을 나물할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살림사리 상태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 하겠다. 문

맹이 많은 나라에 도서관이 적고 대학 도서관이라고 차려는 놓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한다는 것인지 뚜렷한 목적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 책임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러한 곤경에 있을수록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고 선두에서 일해나가야 하겠다.

미국과 같이 큰 살림사리를 볼 때 그들이 일하는 방식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한국에 적수입해서 모든게 다 잘 된다고 할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개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하나 우리 사정에 잘 안맞는다는 것은 대개 나중에 깨닫게된다. 우리 나라에도 전체적인 뚜렷한 방향과 방법을 발견하여 이를 실천하는 강력한 운동이 있어야 하겠다고 이궁리 저궁리 하는사이에 벌써 시카고 주택지의 파노라마가 밑에 한없이 전개된다. 하여간 기가 막히게 부강한 나라라는 탄식으로 잡념을 치우고 내릴 준비를 하였다.

原 稿 募 集

本誌에 掲載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募集하오니 玉稿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圖書館事業에 關係되는 論文
2. 뉴스 資料
3. 其他

磨勘 每月 15日

(編輯室白)